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이번주 독서: 이규희 스테파노, 한지영 크리스티나

다음주 독서: 이준범 베드로, 김나영 안나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다음주 복사: 어주현 안드레아, 이즈은 윌프레드

이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조은경 수산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무화과나무 심기를 좋아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 나타난 표현처럼 삶의 결실, 영화,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삶의 결실이 없음을 뜻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루카 6,43-44 참조)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자기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고 열매가 열렸는지 해마다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포도 재배인이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청합니다.

이 비유에서 밭 주인은 하느님을, 포도 재배인은 예수님을,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들 삶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자 이런 비유를 들어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 복을 받았지만 앞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백성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꾸면, 주님의 포도밭에 서 있는 한 그루 무화과나무인 우리가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주님의 꾸짖음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은 채 이대로 평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복음의 활자가 바뀌지 않아서 해마다 무화과나무를 베어 버리지 않고 한 해씩 연기해 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주님께서서는 복음이 늘 같은 말씀이듯 해마다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기게도 더 나아지지 않는 우리와 그래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사이의 줄다리기가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00

교무금: \$ 525

합 계: \$ 825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30 주일]

2011 년 10 월 22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2, 1-5

<제 2 독서> 로마서, 10, 9-18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알렐루야.

마태복음, 28, 16-20

복 음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앞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406 봉헌: 514 성체: 499 파견: 450



생명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교

“당신들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종교인들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1868-1948)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학을 간 영국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고 많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도 심한 때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남긴 이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며, 이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증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를 다른 이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 불성실하며 거짓말과 위선, 불의와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복음을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복음 선포이고 참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무엇보다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이제 외부에서 강요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를 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하며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공지사항

- 다음 주(10월 29일)는 공동체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공동체 식사는 1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 다음 주 미사 후, 공동체 식사 후에 사목회의를 갖겠습니다. 사목위원, 성모회장님, 구역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멀리서 가까이 보기 3

오래 / 잊은 지 오래 / 나, 품앗이 잊은 지 오래 / 언제 부터였을까 / 저마다 농약 통을 등에 지고 / 독한 풀 약 뿌리면서부터였을까 / 트랙터 사들이고부터였을까 / 앞다툼 논밭 갈아뭇개고 / 대형 비닐하우스 짓고부터였을까 / 언제부터였을까 / 좌변기에 앉아 똥오줌 누면서부터 / 구들장 뜯어내고 기름 때면서부터 / 길 뚫리고 땅값 오르면서부터였을까 / 언제부터였을까 / 걸쭉한 농담 주고받으며 / 더운 땀 식혀가며 밭 그늘에 둘러앉아 / 술잔 주고받은 지 / 친구들과 들 밥 먹어본 지 / 아랫집 현수 얼굴 본 지도 오래 / 정말 오래 / 낮도 땀도 지갯작대기도 / 나, 잊은 지 오래 16년 전 이사 올 때만 해도 동네를 통틀어 두 대의 트랙터가 있었다. 지금은 14대의 트랙터가 왕왕거리며 동네를 돌아다닌다. 계산상으로는 7배는 더 여유롭게 더 잘 살아야 함에도 도리어 각자 어깨에 짐채만 한 트랙터 무게 만큼 생활의 부채를 짊어지고 힘겨워들 한다.

20년 전보다도 배춧값은 영 형편없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김치냉장고 때문이라고 곱지 않은 눈을 뜨고 구시렁거리면서도 빠짐없이 집 안에 김치냉장고를 들여 놓고 사는 것이 요즘 시골 풍경이기도 하다. 살포기라는 것, 트랙터나 1톤 화물차에 달아 쓰는 살포기가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거름을 밭에 내다 뒀다. 차도 닿지 못하는, 땀땀으로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든 가파른 비탈밭에 장정 대여섯 명이 퇴비 포대를 저 날라 온종일 뿌리고 나면 소주 땀 병 1~2 상자는 쉽게 동나고 오늘은 김 씨네 내일은 박 씨네 봄 철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기 일쑤였다. 흙뻘 젖은 옷에 얼룩덜룩한 얼굴하고 산그늘에 앉아 먹던 들 밥은 왜 그리 맛있던지, 그 힘들고 고된 일에도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왜 그리 신이 났던지.

모름지기 농사라는 것이 하루하루 날씨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하늘과의 동업이고 제아무리 성능 좋은 농기계에 의지한다 해도 결국은 사람 손을 덧대고 보탬 수밖에 없기에 자연 사람 귀한 줄,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산다. 이런 까닭에 한동안 보지 않을 것처럼 으르렁대다가도 머리 주억거리며 우리 밭일 좀 해달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길을 가며 한 걸음 내딛는 데도 남이 내딛는 발걸음을 조심조심 살펴보는 것이다. 여럿이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학교에서 배운 1+1=2 만이 아니라 3, 4도 되고 때론 7, 8도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 하찮은 별레조차 함부로 지나치지 않고 손으로 쓰다듬고 끊임없이 눈길을 던지는 것이다.

김정일 도미니코 (농부)